

인간존중의 경영부문 장려상 수상 호남정유 吳弼弘 부장

주 정 빈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소속 : 호남정유 여천공장 정유생산부문
직위 : 부장
성명 : 오필홍(吳弼弘)
입사일자 : 1978. 4. 1
담당업무 : 정유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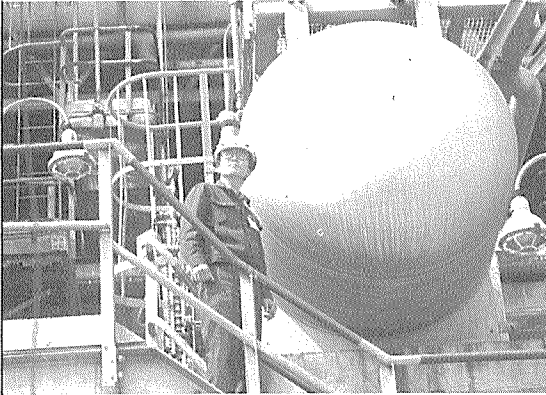
『상기 피추천인은 1978년 4월 1일 호남정유(주) 여천공장 입사이래 현장 최일선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교대근무 조직을 운영하면서 간파하기 쉬운 경영이념을 현장 최일선 조직에 까지 전파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발휘되는 풍토를 이루는 한편,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강도 높은 실천을 통해 출선수범을 보이는 등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9일 트윈타워 동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럭키금성 그룹경영이념선포 3주년 기념식에서 「인간존중의 경영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湖南精油 여천공장 정유생산부 吳弼弘 부장(42)에 대한 경영이념 실천우수자 추천사유이다. 럭키금성그룹은 지난 '91년 V추진본부 주관으로 그룹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그룹 전 구성원을 Challenge 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수상식은 3번째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부문」과 「인간존중의 경영부문」으로 나뉘어 시상했는데, 수상자인 湖南精油 吳弼弘 부장

은 인간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는 신념하에 부하사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여 일을 맡김으로써 개인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부문내 SKILL 개발활동을 주도하여 CU장으로 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아스팔트 악취제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최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운전 기술 및 특장장치 운전방법 매뉴얼 작성으로 운전원의 기능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번 「인간존중의 경영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다.

吳弼弘 부장은 경기도 강화가 고향으로 78년 한양대 화공과를 졸업한 후, 그해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살리고자 현장공장을 선택하여 16년간 여천공장에서만 근무한 전문 석유맨으로 호남정유의 산증인 이기도 하다. 부인과의 슬하에 中 2, 國 6학년 형제를 두고 장구미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吳 부장은, '78~81년 기술부 근무를 시작으로 '81~'85년 생산부 공정기사, '86년 교대과장, '86년 10월~'92. 1. 생산3과장을 거쳐 '92년 부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본인은 생산3과장에 재직중이던 '88년부터 제3원유공정의 계기를 아날로그 운전 방식에서 디지털운전방식으로 교체하는 계기현대화작업에 초기설계단계부터 시운전까지 참가하고 결실을 보게 되고, 다른 공정에 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에 보람을 느꼈다고 하며, QC대회 · 창안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몇년간 독점차지한 것으로 애착과 보람을 갖은 시기였다고 한다.

吳弼弘 부장은 또한 '92년 정유생산부장직을



맡은 이래 경영이념 및 비전의 전파 및 공유를 위해 PRO-VISION 발간을 시작하고, 초우량 조직을 지향하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원보다 앞서 술선수범하였고, 컴퓨터에 의한 공정제어의 장·단점 비교와 실질적인 이해와 운용을 위해 ▲상압증류 공정의 경제적 운전 및 석유제품, ▲No. 3 CDU 공정전산, ▲No. 3 CDU ACS 운전 교범을 번역해서 책으로 발간·교육하고, 81년 시운전이래 사용되어온 NKHT/Rheniformer 공정 운전교범을 개선된 공정에 맞추고 축적된 노하우를 삽입 표준화하여 출간하였으며 No. 3 CDU ACS Project의 투자회수를 6개월에 마치도록 하고 공정전산팀과 합동으로 오는 3/4분기까지 No. 1 CDU A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외, 등유/경유 공급 저장조의 질소 Blanket 시설보완으로 고질적 열교환기 막힘방지, 폐자재를 이용한 공정 트러블을 제거하여 공정의 안전성 도모와 환경문제해결로 작업환경개선, 자기개발과 기술연마(화공기술사 자격 획득), 등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신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이처럼 개인의 사명과 과제를 부여하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자기개발의 동기부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등 인간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사관계 대립시에는 우선 현장의 소리

를 수렴하고 불만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사원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모습을 견지하였고, 이같은 노력과 근면함은 악화일로에 있던 노사대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吳彌弘 부장은 개인적인 직업관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家訓이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이며 직업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라고 직업관의 일단을 피력하고 자신이 청춘을 불살은 호남정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합리적 회사(경영 자체나 조직, 인사관리 등)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Pacesetter의 역할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또 이같은 목표와 설정이 개인에 까지 전파되고 있는 기업이며, 보수·복리후생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자사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유생산부 교대근무자가 135명인데 근무로 인한 화상, 골절 등 부원의 재해시엔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감도 느낀다는 자상함과 부원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상을 수상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자신을 믿고 따른 부원과 정해철 전무님, 손칠남 상무님에게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연속이지만, 갈등속에서 개인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후배에게 드리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는 등, 개인이 함몰되기 쉽고 개인의 인격을 거론하기 힘든 현대 조직사회에서 항상 따뜻한 人間味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앞을 보려는 吳彌弘 부장은 석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스리기 급급한 우리 모두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